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7 pp. 220-227,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7.22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연관성

박병준[1], 박선정[2], 조하나[3*]
[1]대구보건대학교 간호대학, [2]여주대학교 간호학과, [3]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Byung-Jun Park[1], Sun-Jung Park[2], Hana Cho[3*]
[1]**College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2]**Department of Nursing,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3]**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Culture Universir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써, 4년제 간호 대학생 240명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임상수행능력(F=1.888, *p*=.048)과 간호전문직관(F=1.976, *p*=.046)의 경우 전공만족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전공에 만족한다는 집단이 보통인 집단, 불만족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의 경우 전공에 만족한다는 집단이 불만족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스트레스는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41%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전문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임상실습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정도가 임상실습의 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임상실습에 임하는 것은 중요한 실습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실수로 인하여 임상실습의 스트레스가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 nursing profession. Data were collected from 240 students in the nursing colleg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1.888, p=0.048) and the nursing profession (F=1.976, p=0.046)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atisfaction of majors. The nursing professional institution contained more population groups that were dissatisfied than satisfied with the majors. Additionally,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reported to affect satisfaction by 41% of the respondents. Overall, stressful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the degree of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Accordingly, the level of stress experienced during clinical training also affects the performance of clinical practice, and can therefore lead to mistakes. Thus, there is a need to develop future interventions that could reduce the stress experienced by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Keywords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ursing profession

*Corresponding Author : Hana, Cho (Baekseok culture universiry)
Tel: +82-41-550-8728 email: hncho@bscu.ac.kr
Received June 22, 2016 Revised (1st July 1, 2016, 2nd July 4, 2016, 3rd July 6, 2016)
Accepted July 7, 2016 Published July 31, 2016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적은 복잡하고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여 임상실무를 원활하고 능숙하게 수행하는 간호사를 배출하는 데에 있다[1].

또한, 인간을 총체적인 존재로 보고 신체적,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영적 측면의 전인간호에 그 목적을 두며,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이다[2].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간호 대상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양질의 간호를 기대하게 되어 임상실습지도자들은 학생들이 실무실습을 효율적이면서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을 강구하게 된다[3].

하지만 간호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는 어려움과 임상의 새로운 환경과 예상치 못하는 상황,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역할수행, 과중한 업무, 무력감 등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4].

특히 '처음 임상실습'이라는 자체는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2].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칫 실습에 대한 흥미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대한 박탈을 경험 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은 곧 간호사로서의 전문직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5]. 간호사로서 갖는 간호 관에 직업관이 결합된 개념인 간호전문직관이란 간호를 어떻게 보며,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뜻하며, 직업으로서 간호에 대한 총체적인 견해와 간호사의 활동이나 그 직분에 대한 포괄적인 신념을 말한다[2]. 개인의 간호전문직관은 대학에서의 전문직 교육에 의해 발달되므로 전문지식이나 기술과 더불어 간호학에 대한 태도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3].

임상현장에서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과목, 간호대학생의 실습내용, 간호대학생의 실습지도, 간호대학생의 실습환경, 간호대학생의 실습시간, 간호대학생의 실습평가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의미한다[4] 간호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은 간호 대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치관과 태도, 간호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을 말한다[5]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임상환경에서 사람의 상태와 반응을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인 임상수행능력은 중요하다[6].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및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통하여 스스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상현장에서는 중요시 된다[7]. 임상실습이 간호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실습 시 임상실습기관에 만족하지 못한 간호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진로결정에 있어 전공과 무관한 다른 영역으로 떠나버리게 됨에 따라 전문 인력 손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통한 만족도가 강조된다[8]. 임상실습만족을 통해 자아와 일의 성취를 실현하기 위한 직업세계를 잘 이해 할 수 있으며 진로 태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임상실습만족정도가 높을 때 간호 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된다[6]. 간호대학에서의 임상실습교육은 전문지식이나 기술과 더불어 간호학에 대한 태도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임상수행능력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2-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그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의 이론과 통계 등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정도,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 소재한 3개 대학교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간호학 실습교과목을 이수 중 인 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sample size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는 중간크기인 0.15,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하여 최소 표본 수 173명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270부를 배부하여 264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설문지 24부를 제외하고 24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 2일~11월 12일까지이며, 각 대학의 교수에게 연구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선정된 대학의 지도교수 동의하에 이루어 졌다. 자료수집 시 본 연구 목적과 내용에 동의한 간호학과 3~4학년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설문지 배부 전에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연구 문의 등이 기술된 설명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로부터 연구 참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에 자유의사로 참여할 것,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 및 서면으로 설명하였다.

2.3 연구도구

연구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 9문항, 임상실습스트레스 57문항, 임상실습만족도 31문항 ,임상수행능력 45문항, 간호전문직관 18문항으로 총 151문항이다.

2.3.1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감정, 사고과정, 그리고 육체적인 상태에 위협적인 영향을 주는 긴장상태로 개인 자신의 욕구충족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걱정이나 근심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Kim과 Lee[7]의 도구를 사용했으며,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였다.

2.3.2 임상실습만족도

Yang 과 Moon연구[8]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86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81 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다소 높은 편이었다.

2.3.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Lee 등[9]이 개발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도구는 간호과정(11문항), 간호기술(11문항), 교육/협력관계(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6문항), 전문직 발전(9문항) 등의 5개 하부영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그렇지 않다' 1부터 '매우 그렇다' 5까지로, 총점은 최소 19부터 최고 95까지이다. 측정된 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8이었다.

2.3.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내용은 Yeun[2]가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bach's α는 .89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기술통계로 산출하였다. 간호전공 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Scheffe's test를 사후검증으로 수행하였다.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각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40명으로 남자가 35명(14.6%), 여자가 205명(85.4%)이고 간호(학)과 3학년은 83명(34.6%), 4학년은 157명(65.4%)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157명(65.4%), 전문대졸이 31명(12.9%), 대졸이 52명(21.7%)이었다. 거주형태는 자가가 92명(38.3%), 자취가 64명(26.7%), 기숙사가 82명(34.2%), 친척이나 친구 집이 1명(0.4%), 기타가 1명(0.4%)이었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52명(21.7%), 불교가 26명(10.8%), 천주교가 19명(7.9%), 기타가 2명(0.8%),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41명(58.8%)이었다. 건강상태는 165명(68.8%)이 양호하다, 71명(29.6%)이 보통이다, 4명(1.7%)가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대인관계는 159명(66.3%)이 좋다, 81명(33.8%)이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 간호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90명(37.5%), 보통이다가 133명(55.4%), 불만족하다가 17명(7.1%)이었다. 임상실습시간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8명(20.0%), 보통이다가 143명(59.6%), 불만족하다가 49명(20.4%)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임상실습스트레스의 평균은 3.023±.68이었으며, 임상수행능력의 평균은 3.092±.52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의 평균은 2.990±.42로 나타났으며, 간호적문직관의 평균은 3.085±.58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40)

Variables	Category	N	Ratio
Gender	Male	35	14.6
	Female	205	85.4
Grade	grade 3	83	34.6
	grade 4	157	65.4
Education at the time of admission	High school	157	65.4
	Over the college	83	34.6
Health condition	Good	165	68.8
	Common	71	29.6
	Bad	4	1.7
Peer relationship	Satisfaction	159	66.3
	Common	81	33.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90	37.5
	Common	133	55.4
	Dissatisfaction	17	7.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ime	Satisfaction	48	20.0
	Common	143	59.6
	Dissatisfaction	49	20.4

Table 2. Mean of Reserch Variable for the Subjects (N=240)

Variables	M±SD	Min～Max
Clinical practice stress	3.023±.686	1.123～4.965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3.029±.522	1.210～4.316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2.990±.423	1.548～4.323
Nursing profession	3.085±.585	1.372～4.860

3.3 간호전공만족정도와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대상자의 간호전공만족정도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임상수행능력(F=1.888, p=.048)과 간호전문직관(F=1.976, p=.046)의 경우 전공만족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전공에 만족한다는 집단이 보통인 집단, 불만족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의 경우 전공에 만족한다는 집단이 불만족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임상실습만족도의 경우 전공만족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Nursing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 (N=240)

Variables	Catgory	n(%)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a)	90(37.5)	3.063±.669	.245	.783	3.113±.629	1.888 (a>b,c)	0.48*	2.954±.413	.928	.397	3.144±.601	1.976 (a>c)	.046*
	Common(b)	133(55.4)	3.003±.708			2.978±.448			2.999±.417			3.076±.593		
	Dissatisfaction(c)	17(7.1)	2.976±.616			2.981±.370			3.101±.524			2.840±.352		

*p<.05

3.4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와 각각의 하부영역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 (N=240)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
Clinical practice stress	1	-.473 <.001***	-.329 <.001***	-.641 <.001***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1	.450 <.001***	.683 <.00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	.487 <.001***
Nursing profession				1

***p<.001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r=-.473, *p*<.001), 임상실습만족도(r=-.329, *p*<.001), 간호전문직관(r=-.64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r=.450, *p*<.001) 및 간호전문직관(r=.683,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역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487, *p*<.001).

3.5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상실습스트레스를 회귀 분석 식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회귀분석 검정을 위하여 F값을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유의함을 알 수 있었고, Durbin-Watson 검정결과도 모두 1.825에서 2.056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2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β=-.329, *p*=.009), 임상수행능력(β=-.473, *p*=.012), 간호전문직관(β=-.641, *p*=.037)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회귀분석 결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β=.450, *p*=.024)과 간호전문직관(β=.487, *p*=.041)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240)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p*	R^2	F(*p*)	Durbin-Watso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329	5.367	.009**	.108	8.809***	2.056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473	8.282	.012*	.224	8.587***	1.958
	Nursing profession	-.641	12.872	.037*	.410	5.684***	1.825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450	7.776	.024*	.203	9.467***	1.923
	Nursing profession	.487	8.597	.041*	.237	3.902***	1.974

*p<.05, **p<.01, ***p<.001

라서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연관성에 대해 서술적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간호전문직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살펴본바 모두가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능숙한 임상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학 이론은 물론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겸비하기 위하여 임상실습 교육은 필수적이다[10] 학생들은 이러한 임상실습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경험을 하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실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문제, 불안, 긴장, 좌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1]. 선행연구 분석으로 보아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실습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타나났다[7-9].

현재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이 필수과정인 만큼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진다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간호 대학생이 간호사로서의 직업관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교육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상실습스트레스의 평균은 3.023±.68로 낮은 점수로 측정되었으며 Kim과 Lee[7]의 연구결과에서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총 평점은 3.16점으로 측정되어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중간이상으로 간호 대학생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어진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은 간호 대학생에게 학과 이수를 위한 과정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의 만족도와 더불어 간호전문직관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 일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빈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가 90명, 보통이다가 133명, 불만족 한다가 17명으로 보통이상으로 응답한 간호 대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상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만족도를 확인하여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의 평균은 2.990±.42점으로 측정되어 Mun과 Yang[8]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평균3.11±.38점으로 선행연구 보다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임상실습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의 연속이고[7] 그러한 반복되는 일에 대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자존감의 손상을 주어 임상실습의 효과를 저해하므로 학생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여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12].

임상수행능력은 3.029±.52으로 Kim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3]에서는 3.49점으로 본 연구가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간호학생들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술기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감이 생기고 배운 것을 적용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게 되므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의 평균은 3.085점으로 Choi[14]의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 3.6점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간호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보다 깊은 지식과 숙련된 행위로 역할을 수행하며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am, Kim and Cho[15]의 연구에서도 간호전문직관 변량의 0.7%만을 설명하여 본 연구결과가 지지됨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회기분석 결과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와 Jung의[16] 선행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호전문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간호 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필요한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확립을 위해서는 병원이나 대학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수업이나 실습에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교육이나 제도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 각각 소재한 3개 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수행한 연구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학교육 개발 과정 및 진로 설정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전문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실습 중에 스트레스를 겪는 것이 결과적으로 간호사라는 미래의 직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임상실습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임상실습의 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임상실습에 임하는 것은 밀도 있는 실습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실수로 인하여 임상실습의 스트레스가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

[1] G. Maha, Stress and coping :Junio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settings. Nursing Forum, Vol. 33, No. 1, 1998.

[2] E. J Yeun, Y. M. Kwon, O. H. A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3] C. Barrett, F. Myrick, Selecting clinical preceptors for basic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a critical issue in clinical teach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19, No. 1, pp. 194-202, 1994.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1994.tb01068.x

[4] H. W. Kwak, J. E. Yi,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147-15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147

[5] J. A. Y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3, pp. 325-334, 2004.

[6] M. Y. Kim,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3, pp. 1884-189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3.1884

[7] S. R.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1, No. 1, pp. 98-106, 2005.

[8] S, Y, Mun. N, Y, Y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 Learning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No. 4, pp. 473-480, 2007.

[9] S. H. Lee, S. Y. Kim &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2, pp. 219-231, 2004.

[10] M. S. Kim, Nursing Education for the Cooperative, Education Korea Annual Symposium, 1995.

[11] Y. Y. Choe, Nursing Students and the clinical performance and stress factors Related resear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2001.

[12] S. J. Ha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6, No. 1, pp. 132-146, 2000.

[13] H. S. Kim,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16, No. 1, pp. 64-76, 2002.

[14] Y. J. Choi, A study on the related fa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ospital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2009.

[15] U. S. Ham, H. S. Kim, I. S. Cho,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536-544,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536

[16] E. G. Lee, H. S. You, I. H. Park,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 2, pp. 154-163, 2015.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2.154

박 병 준(Byung-Jun, Park) **[정회원]**

- 2012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수료)
- 2013년 3월 ~ 2014년 8월 : 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 초빙조교수
- 2014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순환기계 중환자 간호

박 선 정(Sun-Jung, Park) **[정회원]**

- 2011년 2월 :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 건강증진, 부모 양육행위

조 하 나(Hana, Cho) **[정회원]**

- 2012년 2월 :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6년 8월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수료)
- 2016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증진, 지역사회정신보건